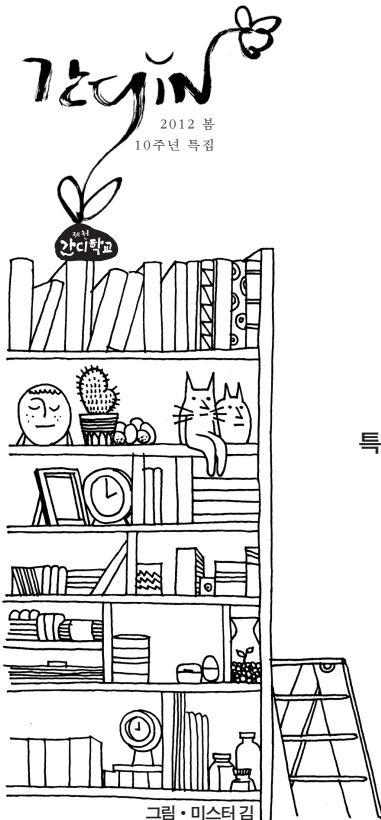


차 례

여는글	2	함께 걸어온 길, 행복합니다
10주년 특집	3	
특집 1: 우리들의 10년	4	간단하게 본 제천 간디학교의 역사
	6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0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그렇게 노력하는 학교!
	12	월요일에는 산책하고 낮잠을 잘 거야, 아주 푸-욱
	14	간디에서의 6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17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특집 2: 그들의 10년	23	
	24	내게 간디학교란
	26	제천 간디와 나
	29	초창기부터 함께 걸어온 길
	33	덕산에 가면~
특집 3: 앞으로 10년	35	
	38	눈이 녹고, 꽃이 피듯이
	41	편견으로 본 간디학교의 양면성
특집 4: 10년째 히치중	47	
	48	역대 입학식 사진
	53	동물을 찾습니다!!
닫는 글	56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날 대신할 순 없어, 피카피카~!
간디 열매 소개	58	아이의 스케치북
기자 후기	59	



함께 걸어온 길, 행복합니다

양희창 간디학교 교장



아침, 아이들 재잘대며 학교로
내려오는 소리 들으며 오늘을 맞이합니다.
점심, 참새새끼마냥 즐기며 밥 먹고 오늘 반찬이
짱이라고 웃는 맛에 시간은 절로 갑니다.
저녁, 최후의 빛을 모아 밤을 향해 공 차는
아이들은 노을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제천에서의 십 년은 훌쩍 지났습니다. 십 년 동안 우리들은 더 맑아졌는지, 더욱 섬세해졌는지, 더욱 여러
지고 아파했는지 여러 생각이 납니다. 간디 15주년보다 이전 10주년을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천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이라기보다 설립이라는 것이 더
욱 적합하겠지요.

인가를 받지 말고 중·고 통합과정의 작은 학교를 운영해 보자, 마을과 분리되지 않은 마을학교를 만들어 보자,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보는 배움의 터를 모색해 보자는 결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
만, 그래도 처음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성찰이 아직은 남아 있는 한, 우리들의 꿈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갑자기 꽃 피는 게 그토록 아름답고 서러우면 나이를 먹어 간다는 증거라고 하지요. 학교 구석구석에 핀 봄꽃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지만 아이들이 이토록 귀엽고 아름다운 건 늙어서가 아니라 젊음을 차곡차곡 쌓아 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디가 아름다운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신 손길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그라질 것을
아는 듯 땅에 조용히 내려앉은 목련 꽃잎마냥 우리를 격려하고 어느새 떠나셨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멀리서 눈
동자처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달래전이라도 부쳐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대, 서로 부대끼며 일상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서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부딪히며 배우
는 삶의 기쁨만한 것이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천에서의 십 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이웃들이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10주년 특집:

우리들의 10년 그들의 10년 앞으로 10년



그림 · 남궁철(6학년)

누군가에게는 더디게, 누군가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간디학교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우리들의 10년> 꼭지에서는 '제천 간디학교'와 열 살을 함께 먹은 간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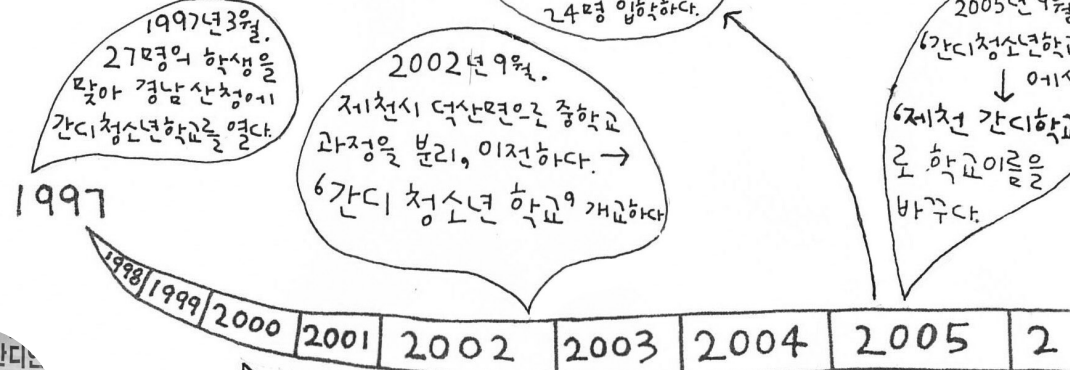
직접 간디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을 부딪혀 가며 살아온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번 10년에 어떤 의미를 담으며 어떤 생각
들을 떠올릴까요? 8, 9년 전에 지나쳐 간, 혹은 1, 2년째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 간디학교는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 곁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걱정 하나에 조금, 학생들의 큰 기쁨 하나에 조금 더. 그러면서 간디학교의 10년, 그 많은 변화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디 가족들의 열 살 이야기를 엮보러 출발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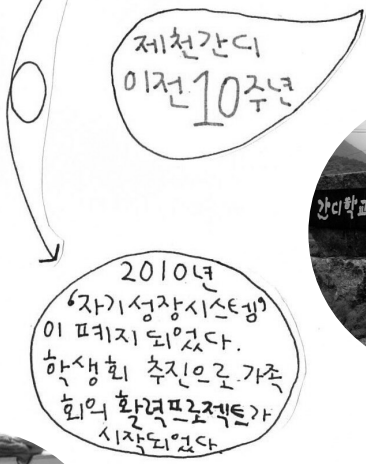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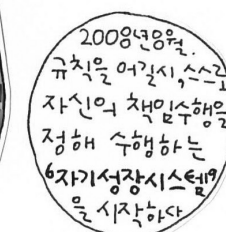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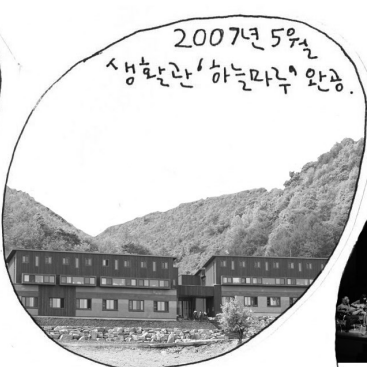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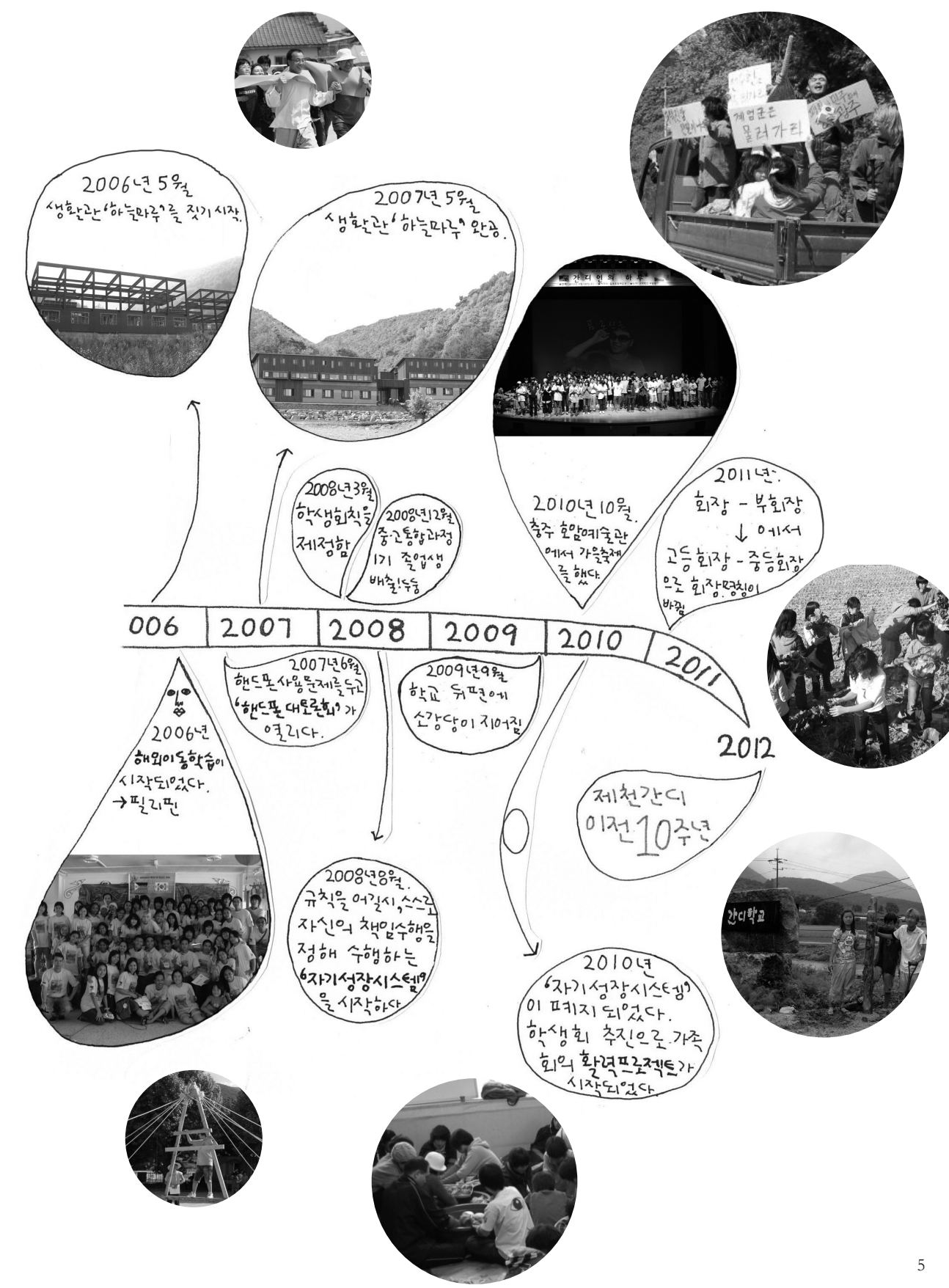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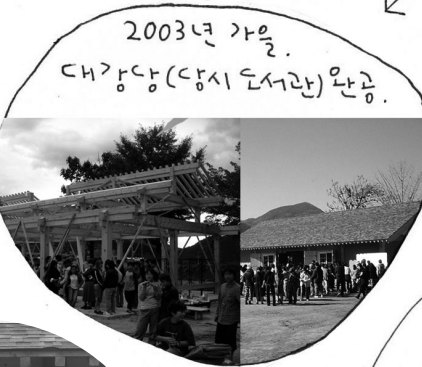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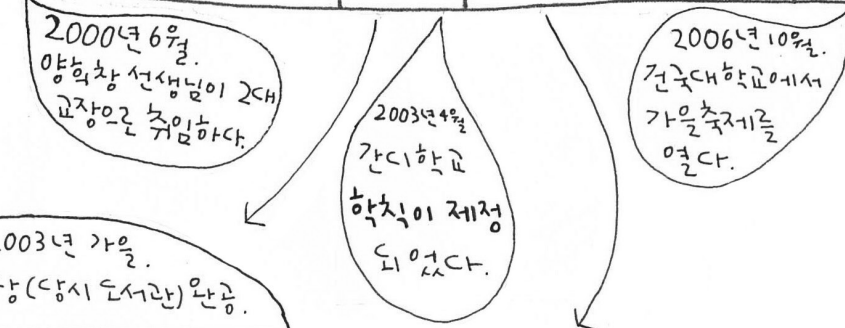
한 별(3학년) · 유현영(4학년) 기자

특집 1: 우리들의 10년

간단하게 본
제천간디학교의 역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	------	------	------	------	------	------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장희숙 교사대표



생각해 보면 바람 따라 내려앉은 민들레 씨앗에도 다 인연의 이치가 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며 월악산 골짜기 작은 학교에 씨앗처럼 날아든 그때가 2003년 봄이었다.

‘기억’이 가지고 있는 망각과 왜곡의 힘은 참 신기한 것이어서 두서없이 뒤섞여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고 진지했던 일들이 몇 년 지나고 나니, 구비문학처럼 구전되어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곱씹을 수 있는 옛일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비치는 간디학교의 모습은 동화 속 꿈 같은 이야기뿐이니, 그 화려한 포장에 부담스러웠던 나는 제천으로 이사 온 10년을 기념해 숨어 있던 뒷골목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한다. 연예인으로 치자면 화장기 없는 ‘민낯 셀카’ 정도 되시겠다. 자, 기대하시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 봄날, 교사들의 외출 혹은 가출

제천으로 이사 오고 한 학기가 갓 지난 2003년 1학기

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학기 초 신입생이 들어오면 알력 다툼 같은 것이 생긴다. 중·고등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지금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1학년 아이들을 아빠 미소로 바라보지만, 그때는 중학생들만 있었으니 힘을 겨루려는 양상이 지금보다 심했다. 수업도 빼먹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 앉아 기숙사의 위계질서에 대해 회의를 했다. 아이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서 교사들은 따로 모여 또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 장시간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 당연하다. 열쇠는 아이들이 쥐고 있는데, 그걸 교사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했으니 될 리가 있나. 어쨌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 탓인 것만 같았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 교사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우리는 떠나기로 결정했다. 고상하게 말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충격요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쇄신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였고, 쉽게 말하자면 교사들 단체로 뺑뺑이를 친 거다. 음,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눈부신 봄날이기도 했으니까. 떠나기 전 교무실 문

에 큰 글씨로 편지 한 장을 붙였다.

“애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각 문장 뒤에 꼭 말줄임표를 붙여야 한다고 임주 샘이 강하게 주장을 했다.)

자책 모드의 편지를 써 붙여 놓고 처음엔 다 같이 나서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놀랄 것을 염려해 결국에는 교장 샘 혼자 학교에 남으시고 철 없는 교사들은 단체로 승합차에 올랐다. 운동장에서 일찍부터 공을 차던 아이들이 출발하는 차에 달라붙으며, “어?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하고 천진하게 어리광을 피울 때 우리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유유히 운동장을 나섰다. 전체 교사가 떠나는데도 15인승 승합차 한 대에 빈자리가 넉넉했다.

당장 교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단양 구인사. 절 입구 천원식당에서 손두부와 막걸리를 한 잔 하고 봄별 아래 영월 동강을 따라 한 바퀴 휘돌며 우리가 나눈 대화.

“점심시간인데, 애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 다음에 애들 데리고 오면 좋겠네.”

“저 흙집은 나중에 소풍 오면 숙소로 써도 되겠는데요?”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학교 얘기가 나고, 지금부터 학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다 함께 결의를 하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모두 침묵이었다. 아이들 얘기를 빼고 나니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황을 하고 오후가 되어 학교로 돌아오니 민망해서 교문을 들어설 수 없었다. 길가에 차를 멈추고 멀리서 보니 위계질서 운운하던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이를 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우리는 결국 아이들 곁으로 가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어색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외출인지 가출인지 애매한 어제의 단체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자 아이들은 가볍게 그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자기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사이 안 좋던 애들하고 친해지는 공동체 놀이도 하고, 학교 청소도 말끔하게 해 놓았다고. 학교에 샘들 안 계셔도 되겠다고.

2. 잊지 못할 생일 선물 ‘단식’

학기말이면 종종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긴다. 집에 갈 때가 되니 생활이 풀어지기도 하고 바빠서 자기 물건을 잘 챙기지도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창기 도난을 해결할 때 아이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 가져간 사람이 고백을 할 때까지 윗동네 도기까지 왕복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 같이 뛰어갔다 오기. 그래도 안 될 때는 단체로 ‘단식’을 했다. 건강을 염려해 교사들이 다른 방법을 권유해도 아이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아이들 뜻이 그러하니 더 말릴 수는 없었고 교사들도 단식의 행렬에 동참했다.

그런데 모 선생님의 생일이 12월, 학기말 즈음이었다. 두 해 연속 학기말에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고, 두 번 모두 아이들은 단식을 선택했다. 당연히 그 선생님도 두 해 연속 생일날 하루 세 끼를 쫄쫄 굶어야 했다. 두 번째 단식을 맞은 생일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던 그 선생님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무실에 있던 유자차 몇 숟가락을 퍼 먹고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렸다. 옆에서 유자차 퍼 먹는 것을 동의 혹은 권유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로 놀리기까지 했으니 더 억울했겠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두 해 연속 생일날 ‘단식’을 선물받은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진다.

3. 그 깊은 밤의 뜨거운 이야기

주기적으로 변하는 바이오리듬처럼 시기마다 유행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기숙사가 본 건물 2층에 있던 시절에는 밤에 몰래 1층으로 내려와 전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새컴(새벽 컴퓨터의 줄임말)’이다.

새컴을 하기 위한 기본 복장은 일단 점퍼를 입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인기척이 느껴졌을 때 점퍼로 얼른 모니터 불빛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인가, 학교 뒤 관사에 살고 있던 나는 목이 말라 새벽 2시쯤 물통을 들고 본관 건물로 갔다. 긴 복도를 지나 정수기가 있는 식당으로 향하는데, 전산실 앞을 지날 때 반투명 창문으로 불빛이 어긋거리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전산실이 식당 옆에 있었다. 지금의 살림터 자리이다.) 살짝 창문을 열어 보니 어둠 속의 불빛은 단 하나였다. 새컴을 할 때는 보통 팀을 짜서 움직이는데, 그 어두운 밤에 혼자 1층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대단한 녀석이었다.

제대로 몰입했는지 내가 들여다보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먼저 덜컥 아는 척을 하자니 너무 당황할 것 같고 그냥 지나치자니 뭔가 찝찝해 잠시 갈등을 하다가 어차피 걸린 것, 장난스러운 작전을 펼쳐 서로의 민망함을 줄이기로 했다. 문 밖에서 ‘야옹야옹’ 하고 어설픈 고양이 소리를 냈다. 진짜 고양이와 하나도 비슷하지 않으니 누군가가 왔구나 하고 인기척을 느끼겠지.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게임을 하고 있다면 빛과 같은 속도로 자판을 두드려야 할 텐데 손은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 녀석. 장난기를 섞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던 나는 아, 잠시 망설였다. 이 밤중에, 전

산실에서, 남학생이, 홀로, 입을 반쯤 벌리고, 눈빛만은 셋별처럼 반짝이며,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것 아닌가. 고개를 더 들이밀면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각도였지만 잠시 고민하다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누구에게나 사생활은 있다. 한참 이성에 관심을 가질 나이에 이렇게 많은 수의 또래들과 모여 살면서 본능적인 욕구를 표출할 통로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때로 안쓰럽기도 했으니까. 성적 호기심을 건강하게 푸는 방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모른 척해 주고 싶었던 나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물론 아무도 그 아이의 새컴 사실을 몰랐으며, 가족회의에서도 안전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넘어갔다. 그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니?” 하고 물어 보았더니 “자도 자도 부족해요.” 하고 대답했다. ㅎㅎ, 한 번 야릇한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니, 내게는 그 대답이 “봐도 봐도 부족해요.”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 친구가 그날 밤 그것(?)을 보았다고 단정 짓지 않으려다. 혹시 아는가. 모두가 잠든 그 깊은 밤에 불타는 학구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EBS 동영상 특강을 보고 있었을지.

4. 그 많던 눈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고사모 회장이다. 고사모란 ‘고구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인 말로 학교 안에 있는 소모임이다. 고사모에 들어오려면 꽤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첫째, 자다가 일어나 밤고구마를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둘째, 하루 세 끼 밥 대신 고구마로 연명할 수 있는 사람. 셋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모든 고구마를 사랑하는 사람. 넷째, 고구마 심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쏟는 사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고구마를 심고, 김을 매고, 물을 주고, 때가 되면 거두어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아궁이 축제’를 하는 것이 고사모의 일 년 프로젝트이다. 사실 축제 혹은 놀이를 빙자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 그 의도를 들키지는 않아서 고사모 아이들은 고구마 밭 가꾸는 일을 농사일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2008년 일 년 동안 휴직을 하고 속세를 떠나 백일출가 세 번을 하고 돌아온 내게 사람들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가 ‘눈물의 여왕’이란 별명을 갖고 있던 내게 눈물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제야 밝히지만 사실 비밀은 고구마 밭에 있다.

복직하고 첫 해 ‘고사모’를 만든 나는 울적한 마음이 들 때 호미와 밀짚모자를 들고 고구마 밭으로 간다. 오로지 풀과 고구마를 구별하기 위해 손끝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찰랑이던 눈물은 속 들어가고, 이내 흙냄새와 더불어 고요와 평화가 찾아온다.

작년 가을이었다. 한 아이가 눈이 빨개진 채로 생태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울테가 없어요.”

눈물이 그렇그렁한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서 훌쩍 떨어져 있는 고구마 밭으로 갔다. 밭고랑에 털썩 주저앉아 처음엔 훌쩍이더니 나중에는 껴끼이 목 놓아 울었다. 실컷 울고 나자 묵묵히 김을 매는 나에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힘들다고, 자기는 세상에서 왕따인 것 같다고, 묻지도 않은 자기 이야기를 줄줄이 꺼내 놓더니 이야기를 마치자 울음도 그쳤다.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고 해처럼 말간 얼굴로 사라졌다. 한 마디 위로도 필요치 않은 순간이었다.

그 해 고구마 농사 3년 만에 처음으로 풍년이 들었다. 쌀쌀한 늦가을, 고구마 밭에서 울던 그 아이와 고사모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우리 눈물을 먹고 자라 더 맛있나 보다, 하면서 같이 웃었다.

장 선생의 그 많던 눈물들이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은 의아해 하지만 사실 허공을 떠돌던 그 눈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고구마 밭에 있다. 부드러운 흙, 바람, 돌멩이 속에 스며들어 곳곳하게 나의 오늘을 지키고 있다. 따스한 봄이 돌아왔으니 다음 주쯤 고구마를 심으려고 한다.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고구마 밭에서 울해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고구마와 함께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제천 간디학교 10주년 특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얘기하고 싶어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교사들의 박장대소 이야기는 대부분 교육적이지 않은 소재들(이른테면 술과 관련이 되었다거나)이 많고, 아이들과의 은밀한 추억은 남들이 몰라도 좋을 우리만의 시간으로 묻어 두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여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

그래도 목까지 차올라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제천 간디학교 20주년이 되면 폭로하기로 한다. 아름다운 자연, 예쁜 아이들, 좋은 이웃들과 더불어 10년 후에도 내가 이 곳에서 간디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그렇게 노력하는 학교!

강도운(3학년)

사실 처음 간디 10주년 기념 글을 써 달라고 청탁을 받았을 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것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라는 주제라니. 그래, 나의 표현대로 해 보자면(여기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한마디로 “뿔”이다. 뿔난 정말 최근에서야, 것도 아침 열기 시간에서야 우리 학교의 제일 중요한 교육철학이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사랑’과 ‘자발성’을 모토로 내세우는 학교인 줄 알았다. 내가 간디를 처음 접하게 된 10년 전부터 말이다. 그런데 중3에 올라와서야 알게 됐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때는 내가 어리기도 했고 학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어디선가 듣고서도 머릿속에서 지워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내가 ‘아,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가 절대 아닌데. 별 이상한 소리가 다 있네.’라고 느꼈다가 하는 일들 말이다.

음... 내가 커 가면서 지켜봤던 간디학교는 결코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학교만은 아니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

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학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학교가 맞을까?

우리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라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다. 돈 또는 과자 도난이라든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나눈 신발 문제, 우산 도난 문제 등. 정말 더불어 살아간다면 자기 것을 소중히 다루듯,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서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나도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은 적이 있다. 그것이 친구의 것일 때도 있었고, 오빠의 것일 때도 있었다. 아무리 가족이고 친구더라도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지금 앞서 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도 그런데, 이게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더불어 살아간다면,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돌림도,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원만한 교우관계가 완성되고, 더불어 행복하다는 것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간디학교를 거의 10년간 지켜봐 왔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은 참 많다.

물론 나도 ‘아, 이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느낄 때는 있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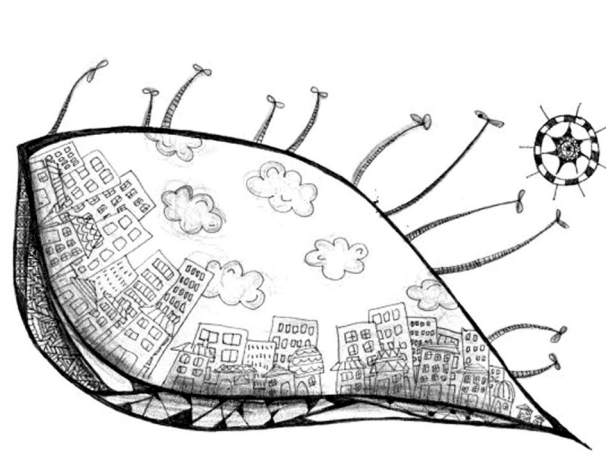


그림 · 이기원(2학년)

방 간담회, 기숙사 일 그리고 학교 일을 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일들은 개인의 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기숙사 전체가 흥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서 ‘아,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하고 가슴이 찡해질 때가 있다. 또, 간담회를 할 때에는 뭔가 정말 포근하고 재밌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간디학교는 일반 학교랑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점도 참 많다. 학교에서 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비폭력이 무엇인지도 배웠다. 또 만약에 내가 일반 학교였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는 연대의식도 가진다.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로 모두가 웃을 수 있다.

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직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에 는 내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도 나에게 정의를 내리라

고도, 그리고 이 문제로 생각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다. 그래도 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간디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다.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우리 학교이기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닐까? 서로 같은 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간디학교라는 하나의 문화가 탄생한 것.

예전에 비해 지금의 학교는 참 많이 바뀌었다. 시설도, 학교 방식도, 사람들도. 좋아졌다고 나빠졌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난 적어도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선택의 자유를 살려서 수업도 고를 수 있고, 기숙사도 새로 생겼다. 학생들은 입학할 때 학교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그저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 가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실 뿐.

물론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조금씩 퇴색된 것도 있다. ‘역사사랑’과 같은 좋은 목적의 동아리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즐거이는 의미로 만들어졌던 기말, 가을축제도 요즘은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공연도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졸업할 때쯤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도 된다. 물론 걱정도 좀 되지만ㅋㅋ(졸업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다). 사실 급하게 글을 쓰다 보니 급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주제도 좀(?) 벗어나고 말을 헛설수설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 우리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월요일에는 산책하고 낮잠을 잘 거야, 아주 푸-욱

이나리(졸업생)

“도리아-, 어리아-. 언니 왔당!”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반겨 주는 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 곰돌이 같은 우리 집 강아지 도리다. 자기하고 놀자고 깽깽거리는 도리는 껴안아 줘야만 잠전해진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 나무를 지나갈 즈음이면 어김없이 뒤에서 나타나 ‘야-오웅’ 하고 나보다 먼저 걸어가는 어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도리랑 어리와 논다. 도시락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그리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귀여워서 이로 앙 물어 버리고 싶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 입술을 깨문다. 으으- 귀여워! 귀여워!!
 나는 강화도에 산다. 아, 이름 이나리. 아이는 시골에서,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사람 사이에서 커야 한다는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이사 왔다. 아버지 바람대로 우리 삼남매는 동네 아이들과 산과 들, 바다를 이리저리 나뉠굴며 놀았다. ‘어떻게 그렇게 놀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이 깔깔해지거나 배가 너무너무 고풍 때까지 밖에서 뛰놀고, 가까운 친구네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서 또 놀고, 너무 늦으면 친구네서 자고,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고. 뭐 그런.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이들과 노는 게 좋다.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을 나누는 게 참 좋다. 물론 재미있게. 난 선생님보다 아이들에게 친구로 다가가는 게 좋다. 서로에게 높낮이가 어디에 있는가? 키 차이라면 몰라도...
 나는 자연이 좋다. 숲에 가만히 앉아 분주하고 은밀한 그대들을 관찰하는 게 좋다. 흔적과 소리로 어디에 있는지 찾고, 누구인지 맞히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참 좋다. 작은 식물과 나무들의 변화를 보는 것도 좋다. 갯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개와 갯지렁이들이 스멀 스멀 나온다. ‘나는 공기다, 공기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저런 다리를 안고 움직이는 걸 관찰한다. “오늘 저어새 7마리 왔어요! 우와!!” 갯벌에 새들이 찾아오면 종류 별로 몇 마리가 왔는지 기록하는데, 그 중에 귀한 새들이 오면 더 흥분한다. 요새는 북으로 날아가는 흑두루미와 여행자 알락꼬리마도요, 강화 대표 선수격인 저어새를 관찰하느라 즐거운 나날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변태’란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애’ 같다고 한다. 아직도 공동체에 익숙하냐고 하면서 사회에 맞추라고 한다. 얼른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말도 참 많이 듣는다. ‘여기서 일하면 얼마 벌어? 어머, 겨우? 헤

에-. 공부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맞는 말도 있을 거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부딪혀 보니 내가 생각한 가치와 양심이 저 뒤로 밀려가 있었다.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지금 그대로’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에 실망도 많이 했다.
 ‘사회는 원래 그래.’
 ‘나리 쌤이 아직 순수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들었다. 너무 불안했다. 내가 여기서 무얼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난 무능력해... 다른 이들에 비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보다 다른 이의 기준을 먼저 받아들였다.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크게 반응하고, 자책했다.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일기를 썼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상한 일들을. 20살이 넘으면 어른인데, 왜 아직도 어른이 안 되고 이렇게 미숙한 걸까? 내 친구들은 다 어른이 되었는데 나만 아직도 중학생 같다면서.
 아버지는 그런 딸내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가만히. 듣기평가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밖으로 향해 있던 나의 안테나가 ‘나’를 향해 천천히 맞춰졌다.
 그래서 요새 ‘나’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보고 감사해 하고 있다. 하루를 온전히 보낸 것도 감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들어 줄 사람과 자연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여전히 범부중생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강화갯벌센터’에서 일한다. 올해 3년차.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고참이다. 책임감 부족한 감정적인 막내(=고참) 덕분에 어르신들이 고생하신다. 하하.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았다. 부족

한 것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 나가고 싶다. 물론 내가 모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나를 이상하게 볼 거다. 또,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것이다. 뭐가 좋으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거 다 쓸데없어. 돈 되는 거 해라.’
 나는 지금 이 곳이 좋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저기 숲과 갯벌이 있고 그 곳에 찾아오는 새들도, 뭐도, 다 좋다. 난 이게 너무너무 좋다! 쉬는 월요일이 되면 도리와 마을 산책하고 어리를 맘껏 껴안을 거다. 그리고 낮잠을 푹 잘 거다. 아주 푸-욱.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참, 손전화로 043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서 놀랐다. 누구지? 받아 보니 간디학교였다. 알고 보니 원고청탁 전화였다. 간디 10주년. 체천 10주년이구나.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와, 신기하네. 어머, 그런데 나보고 ‘더불어 사는 간디’를 주제로 글을 쓰란다. 이...이, 이렇게 부, 부, 부족한 내가? 심지어 학교 번호도 모르고 스팸인 줄 안 내가?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니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문과 견식을 쌓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과 더 이상 비교하지 말자고 해 놓고 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 영광이라 생각하자. 이번 기회에 나를 돌아보자.
 간디 10주년. 여러모로 날 돌아보게 했다. 차암말로.☘

간디에서의 6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김다은(졸업생)

간디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간디학교가 나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 본 사람이 있었다. 그 질문을 받고서 나는 꽤 오래 고민을 하다가 간디에서 보낸 6년은 '내 삶의 1/3'이라는 대답을 한 기억이 난다. 그 때 만으로 18살이었기 때문에 간디에서 보낸 6년의 '시간'에 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으리라.

간디를 졸업하고 3년이 조금 넘게 흐른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난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을까. 간디에서의 6년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처음 간디학교를 졸업하고서는 학교가 많이 그리웠다. 학교를 한창 다닐 때는 나중에 학교 생활을 그렇게 그리워할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가끔 놀러 온 학교에서 만난 후배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아, 학교 다니던 때가 역시 좋았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며 씩씩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나에게 아주 두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좀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서로 각자의 길을 찾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졸업하고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혼자 여행길에 올랐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도피였음을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떠난 감이 없지 않았고, 떠나기 전, 내가 그 여행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번지르르하게 말할 수는 있었으나 사실 나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꼭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나에게



꼭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로 떠난 여행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찬찬히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디학교 때 여행을 통해 만난, 인턴십을 통해 만난 외국 친구들의 집에서 지내며 3개월 가량 일본,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 정도는 배낭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알려져 있는 태국을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를 여행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길 위에서 만난 스무 살들과의 인터뷰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작은 아이디어였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서 계속하게 되었던 '스무 살을 만나다' 프로젝트. 나의 미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받고자 해서 시작하게 된 이 프로젝트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스무 살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고, 지금 어떤 꿈을 꾸는지 인터뷰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은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내 스무 살에 대해 더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물으면서 나의 꿈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여행을 하는 6개월 동안 길 위에서 나는 사람을 만나고, 아픔과 마주하고, 때로는 희망도 발견하며 서서히 성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잘 한 결정 중에 한 가지를 이때 하게 된다. 바로 스웨덴에 있는 YIP이란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언니를 통해 알게 된 YIP은 내가 졸업할 후 계속 찾던 그런 종류의 학교였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한 별(3학년) · 유현영(4학년) 기자

간담회 참석자: 이어진(04학번), 박종은(5학번), 임소현(5학번), 양지훈(3학번),

10주년을 기념해 이미 사회에 나간 졸업생과 아직 그곳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은 재학생들이 만나, 작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간 중간 매우 진솔한 얘기도 나오곤 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함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었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여행 중이라 갈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 결국에 가게 된 YIP은 지금 생각 해도 꿈속 같은 곳이었다.

다양한 문화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공부하며 보낸 일 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공부를 끝내고 3개월 간의 인도 여행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스웨덴에 가기 전이나, 여행 전에도 한국에 몇 개월씩 있었지만,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아주 가끔씩 한두 명 정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그전과 달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더 많은 친구, 선배들과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옛날에는 만나면 주로 웃고 떠들기만 했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을 이번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여전히 별것 아닌 얘기에 웃고 떠들기도 하지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고민들을 하며 살고 있는지 등. 다른 사람들과 쉽게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스무 살의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과의 분리로 인해 그 당시 나의 고민의 질문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지

못하고, 세계를 다니면 스쳐 가며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제서야 내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다니던 아이들처럼.

간디에서의 6년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졸업 후 무슨 일을 하든 간디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덕산의 골짜기의 풍경을 떠올렸으며, 겨울 아침에 맡았던 그 차가운 새벽 공기의 냄새를 기억했다. 한때는 내게서 떼어 놓으려고 하기도 했지만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사이였고, 함께한 친구들과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존재가 있다는 것 또한 요즘 들어 다시 깨닫고, 그것에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껏 간디에서의 6년이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든 간디학교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진 모르지만, 언제나 든든히 나를 끌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간디학교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셨고, 지금도 열심히 힘쓰고 계신 쌤들과 언제나 옆에 있어 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현영 :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간디학교 10년을 직접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누어 보려고 해. 예전과 지금 학교 문화의 차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서로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어진 : 나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가 만약 6년 과정이 아닌 3년 과정이라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 내가 6년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많아졌다는 건데, 학교에 너무 많은 게 생긴 거지. 조금 낯설달까?

현영 : 뭐 3년 과정이라면 고등을 어떻게 살겠다, 그런 게 질문의 취지였어.

종은 : 3년 과정이라면 서로 더 가족 같을 것 같아. 지금은 진짜 잘 모르거든. 그래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중3 과정만 거치게 된다면 고등을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중3 되면 아, 졸업하고 뭐 하지, 하는 생각도 막연하게 할 것 같아.

소현 : 아무리 우리가 6년 과정이라도 3학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나갈 사람은 3학년 때 다 나가거든. 지훈이는 언제?

지훈 : 나는 그런 고민은 별로 해 보지 않았어. 그런데 어진이 형 때도 6년 과정이었어?

어진 : 내가 입학할 때는 3년 과정이어서 3년 졸업하고 나서는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내가 중2 때 윗학년 선배들을 시작으로 6년 과정이 생겼어.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졸업할 친구들은 졸업하고 6년 과정을 거칠 친구들은 다시 또 면접을 보고 다시 합격시켜서 올라갔지. 그런데 떨어진 친구는 없었어.^^ 어쨌든 6년 과정의 시작은 같이했지.

지훈 : 재학 중에 나가고 싶었던 적은 혹시 없었어?

어진 : 나는 별로 없었어.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많이들 고민하더라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내 생각은 결국 어디에 있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경험하니까.

소현 :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나게 놀기만 했거든. 그런데 고등학생 되면서 서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진 오빠 생각은 언제?

어진 : 우리 학년은 고2 때 무빙도 나가 보고 인문학도 처음 접해 보면서 애들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었어. 요즘에는 학교에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간접적으로 말고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면 좋을 것 같아. 아직은 그런 인문학 수업이라든지 교육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간접적으로 알려주지. 수업으로써 하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현 : 맞아, 고등부 되면서 안 읽던 책도 읽고 인문학도 처음 공부하게 됐는데, 인문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어진 : 그러게, 학교에 그런 수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꼭 인문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과목이든. 나중에 다 도움이 되거든. 나는 약간 수업을 많이 듣지 않는 편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후회를 했어.^^

소현 : 요즘 가족회의 때 선후배 위계질서가 문제가 되고 있어. 근데 그게 예전부터 있던 문화고 누군가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진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왕따들끼리 모아 놓은 집단에서 또 왕따가 생기고 짱들끼리 모아 놓은 그 안에서 또 짱이 생기고, 왕따가 생기고 그렇다더라고. 안 좋은 것이고 없어져야 맞는 것이긴 한데,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문제는 선·후배간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소현 : 이런 문화를 없애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진 : 나는 장난을 많이 쳤는데 후배들에겐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형 소리 듣는 게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후배들한테도 '어진'이라고 부르게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동생 같지도 않고 별명도 그렇지만 호칭을 없애고 나니까 좀 더 친숙해지고, 친한 친구끼리는 안 괴롭히잖아.^^

중은 : 지훈이 1학년 때는 어땠어?

지훈 : 우리 저학년 때는 고등 선배들이 무서웠어. 아예 눈도 못 마주치는 선배도 있었고.

중은 : 그런데 점점 신입생들이 몸집은 작는데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 가족회의 때 말도 잘 하고 같은 방 애가 나한테 귀엽대! 옛날 같으면 언니들한테 혼났지.(웃음)

어진 : 옛날엔 원중이 형 학년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아우, 요즘은 후배들도 정말 크더라.(웃음)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까. 시간에 의존하면 그건 해결이 된 게 아닌데...

중은 : 근데 저학년 때 사고 치고 이런 건 시간이 흐르고 고등부가 되면 누가 굳이 말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깨닫잖아. 근데 그게 잘못을 하고 나중에 깨닫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학교엔 평화가 언제 올지 약간

은 걱정이 돼.

어진 : 졸업을 하고 1~2년 지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그러면서 크는 거다.' 는 말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했어.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재는 왜 저럴까가 아니고 재는 저러니까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겠다 해야 할 것 같아. 또 당한 친구들도 그제 나중에까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쌤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중은 : 음... 화제를 좀 바꿔 볼까? 오빠는 옛날에 되게 밴드도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후배 공연 보면서 어땠어?

어진 : 아, 생각보다 그다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미친 듯이 음악만 하는 친구들보다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솔피바람' 이랑 '지락' 이 학교 대표 동아리에 속했는데 지금은 거의 20개나 되니까. 비율이 조금씩 맞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소현 : 그런데 고등부가 되면 중등부 때는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고등부만 되면 동아리에서도 약간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등부만의 문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게다가 4학년들은 필리핀 가서 없기도 하고.

어진 : 그게 지금 가장 학교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분리하기에도 애매하고, 중·고등부 사이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조금 있고.

소현 : 핸드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진 :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핸드폰 찬성이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별로 필요 없어. 무빙이나 그런 걸 핑계로 대긴 하는데, 어차피 고3 되면 인턴십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되거든.

소현 : 나 같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데...

어진 : 가장 처음에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수업 도중에 게임을 한다든지 문자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스스로가 자제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아무리 학교에서 6년 동안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산다고 해도 밖에서는 결국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 오히려 학교에서 핸드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보면 바깥의 문화에 대해서도 바꾸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소현 : 궁금한 거 있어. 졸업하고 특별한 계획을 짜지 않으면 집에 있거나 알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 첫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에 아직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선 어때?

어진 : 사람들마다 졸업하고 나서 움직이는 동선이 다르긴 한데. 내 친구들 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알바를 하다가 군대를 가는 사람,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 등 다 다른데, 그건 졸업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도

자연스레 찾아가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공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는 소현이 말대로 알바를 많이 찾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졸업하고 한두 달 정도는 쉬어야지. ^^

소현 : 이걸 약간 딴 얘기이긴 한데, 어진은 중3 때 고민이 뭐였어?

어진 : 고1 때는 폭주기관차였고.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터 연애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조금 하기 시작했지. 고1 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학교 안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게 나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나도 계속 간략연(간디록밴드연합)이라는 것을 하다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서 멤버를 새로 구성하고, 이름도 바꾸게 된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을 어렵잖이나마 잡게 되는 것 같아.

졸업생 중에 찬호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흙을 발라서 악기들을 옮겨



서 지금의 밴드실로 만들었던 말이야. 그런 패기가 있으니까 나가서도 인사동 옛장수를 보고 반해서 하겠다고 해서 가위질도 배우고 같이 일하면서 전국 옛장수들과도 알게 됐어. 그런 패기가 좋은 것 같아.

중은 : 오빠는 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뭘 하려고 했어?

어진 : 난 놀려고 했어. (웃음) 학교에서만 아니라 홍대 같은 큰 무대에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는 컸지. 근데 뭐... 여전히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어. ^^

소현 : 내 나름대로 큰 고민인데, 너무 간디학교 안에서 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 대안학교 사람이 아니면 약간 친해지기도 껄끄럽고.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용기도 없고. 인간관계라든지 생활방식이 간디학교에 맞춰져 있어 사회에 나갔을 때 걱정이 많이 돼.

어진 : 나는 그게 굉장한 장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가면서 쌤들과도 깊게 관계를 쌓게 되고 후배랑 선배 사이에도 연대가 생기고,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 예의를 차리지만 살갑게 대할 수 있는.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간디학교 안에서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상대방을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것 같아.

현영 : 나는 휴학을 했었는데, 청소년이 휴학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학교 다니는지 물어 봐. 그러면 대안학교 다닌다고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그런 인식이 박히는 거야. 노는 학교 다니는 애 그런 거. 졸업하고도 어디 학교 나왔는지 물어 볼 것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

어진 : 대처법이라기보단 잘 설명을 해 주는 거지. 사람에게 따라서 말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아니면 적당히 하면 되고. 그래도 힘들 거야, 인식이 바뀌기란.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으니까.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풀릴 게 없잖아!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잖아, 간디학교는.

중은 :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 내가 원해서 간 학교이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라서 더 좋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

중은 : 졸업하면 같은 학년 친구들 많이 만나?

어진 : 지역이 워낙 달라서 힘들긴 하지만, 단짝들과는 계속 만나. 다 같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

래도 연락은 간간이 하고 살아.

소현: 졸업하고 나서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어진: 아직 그건 생각 안 하고 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독립을 해야지. 그 전까지 저금도 많이 해 놓고.

중은: 나는 졸업을 한다는 사실이 기대도 되지만 무섭기도 한 게 졸업을 하게 되면 20대니까 어른이라는 느낌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어린 사람의 특권이란 게 없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획 같은 것도 어릴 때 해야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는데, 어른이 되

면 될수록 밀린다는 느낌도 조금 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

어진: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되지 뭐. 나는 뜬금없이 미용실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도 안 오고 별로긴 했는데, 그런 새로운 발상을 계속해 내는 건 좋은 것 같아.

졸업해도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

어진의 한마디

간디학교를 안 지 8년인데 10주년이라니... 친구해도 되겠네. 10주년인데도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앞으로 한 10만 년은 더 있었으면 좋겠어! 🍀

특집 2: 그들의 10년

우리들의 생활 속, 항상 곁에 있어 주고 힘써 준 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할 때 다독거려 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준 분들이 있어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나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힘써 준 분들이기도 하지요. 이제 10살이 된 간디학교와 함께 지내 온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10년 이야기에 이어, 우리와 함께한 그들의 10년 이야기. 그들은 과연 간디와 어떤 10년을 보내 왔고, 또 보내고 있을까요?

최소은(4학년) · 손채은(2학년) 기자



내게 간디학교란

송숙희 02학번 김재훈 졸업생 학부모 · 후원인

간디를 처음 만난 것은 약 10여 년 전이다. 내 스스로가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고 직접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간디를 만난 것도 아니고, 현실의 내 생활을 스스로가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간디를 만난 것도 역시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간디를 만났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과외공부가 판을 치는 공교육의 틀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간디를 선택했고, 그때 만났던 간디와의 인연은 내 인생의 가치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그 인연은 아직도 계속된다. 계속되는 간디와의 인연은 간디에 대한 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닐까 한다.

간디를 짝사랑하는 나는 행복하다

처음 간디를 접했을 때 그렇게도 먼 길을 마다 않고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하게 서로 어울렸고, 아이들은 행복했었기에 우리도 행복했었

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들을 만났다. 대안학교의 선생님이란 철저히 자기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희생을 하면서 참 행복해 하시는 선생님들 모습이 나를 감동하게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은 아직도 나의 선생님이고, 그런 선생님들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느낌일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인생을 바쳤는데 우리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일까?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생님들께는 무조건 미안하고 고맙고 때로는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간디를 만나서 내게 가장 큰 행복은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친구들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관계들 속에 간디에서 맺은 관계가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아마 앞으로 내가 죽

을 때까지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고 그냥 우리로 만나서 우리로 즐기면서 살아간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디에서 만난 인연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이 더 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이라고 자부한다. 간디에서 맺은 인연들은 아마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소중한 친구들이고,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많이 기뻐해 주고 내가 슬프면 진심으로 나보다 더 많이 슬퍼하는 나의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을 간디에서 만났고 지금도 간디의 이름 아래서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간디란? 행복이다

아이들 때문에 간디를 알게 되었지만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을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다. 간디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지금도 간디와 함께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간디를 떠나지 못하고 그 곁에서 살아갈 것이고 간디에 대한 짝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간디는 내게 행운이었고, 간디를 사랑한다. ✎

제천 간디와 나

남호섭 산청 간디고등학교 교감 · 6학년 다모빠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제천 간디를 가장 많이 방문한 '다른 간디' 사람이다. 서울에서 교사를 하던 나는 산청에 내려와 2001년부터 간디인이 되었다. 원래는 다른 간디가 아니었다. 그때는 모두 하나였고, 지금 제천처럼 중·고등이 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그냥 간디'였다.

만우절 생각이 난다. 아이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 들썩이는 낄새를 눈치챈 샘들이 선수를 쳤다. 중등·고등 교무실이 나뉘어 있었는데, 우리 중등 샘들은 교무실 문에 '오늘은 쉽니다'라고 써 붙여 놓고 문도 잠그고 모두 도망쳤다. 아이들이 샘들을 찾느라 난리가 났고, 꽃 피는 봄날 햇살 따스한 계곡에서 우리는 잘 놀았다.(교장이던 양희창 샘이 어디 있느냐고 부러운 듯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간디학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샘들 땡땡이 사건이었다.

한·일 월드컵 때도 생각난다. 중1부터 고3까지 모두 하나 되어 응원했다. 예선 한두 경기만 보면 되려니 하

고 위성 안테나를 이웃에서 빌렸다. 4강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안테나를 돌려 드리지 못해 이웃에는 미안하고, 아이들 합성 때문에 강당 지붕은 거의 날아갈 지경이었다. 그 여름을 끝으로 한 몸이었던 '그냥 간디'는 고등 과정의 '산청 간디'와 중등 과정의 '제천 간디'로 나뉘었다. 그때 '금산 간디'도 막 시작되고 있었다.

슬픈 이별이었다. 경남교육청과 오래고 질긴 싸움이 있던 뒤였다. 인가받지 않은 중등 과정을 폐쇄하라는 거였다(고등 과정은 98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엄연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불법이므로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였다. 말을 듣지 않으니 급기야 양희창 샘을 고발해서 재판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인가받은 학교에 내려주던 지원금도 모두 끊었다. 그러나 간디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진리가 아닌 것에 불복종하는 간디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별은 어쩔 수 없었다. 나만 보면 '놀아요, 수업하지 말고 놀아요' 노래하던 중학생들이 떠난 자리는 너무 허전했다. 겨우 일 년 반을 같이 지냈을 뿐인데 마치 십 년을 같이 지낸 듯 샘들이 그리웠다. 산청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제천으로 옮겨간 아이들은 한 학기 만에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산청으로 돌아왔다. 한 해가 지나자 산청에서 2학년이었던 아이들도 돌아왔다. 그러나 샘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샘들을 만나러 제천에 갔다. 그리운 혈육을 만나는 기쁨이었다. 손진근, 김현숙, 오필선, 이임주, 장희숙, 태영철, 김병삼, 노경환 샘들과 양 샘. 방학이면 다른 샘들과 함께 제천 샘들을 만났다. 만날 때마다 새로웠다. 술 잘 먹고, 노래 잘 하고, 춤 잘 추고. 그들과 함께라면 꼬박 밤을 새워도 힘든 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에너지가 넘쳤다. 마치 거친 들판 한가운데를 달려가는 표범처럼 야성이 넘쳤다. 그 힘으로 샘들은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학교 시설



도 교육 과정도 제천 간디만의 개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가장 간디학교다운 모습이 제천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중·고 통합 6년 과정은 제천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나는 제천 간디의 학부모가 되었다. 내 딸 다모가 07학번으로 제천에 입학한 것이다. 샘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신입생을 받고, 학교철학을 바로 세우고, 거기 따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딸을 굳이 그 먼 제천까지 보냈냐고. 나는 그냥 웃기만 한다. 제천 간디를 만들고, 지키고, 성장시키는 샘들을 나만큼 잘 아는 '다른 간디' 사람은 없고, 나와 다모의 선택이 곧 메시지인데, 길게 말해 무엇하랴.

어느덧 다모가 6학년이 되었다. 산청과 비슷한 행사들이 겹치는 때가 많아서 자주 빠지기는 했지만, 일년에 두세 번 이상은 제천에 갔다. 5월 대동제에 가서는

그들의 10년

초창기부터 함께 걸어온 길



그림 · 이가원(2학년)

운동장을 달리고, 박 터뜨리기도 하고, 다른 부모님들과 판매 부스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다. 기말 축제에 가면 한 학기, 일 년마다 부쩍부쩍 성장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간디학교 쌤이 아닌 간디학교 학부모로서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그런데 벌써 6학년 학부모가 되고 말았다. 작년 12월, 졸업식에 참석하러 갈 때였다. 내년이면 우리 차례로 구나 생각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 왔다. 산청에서 제천까지 몇 번씩 버스 갈아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다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이 먼 길을 오갔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때때로 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심한 아빠였을까, 5년 만에 처음 드는 감회였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다모가 지금 얼마나 씩씩하게 성장했는지, 그걸 동안 자신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이겨 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었다. 저절로 그리웠을 리가 없다. 첫째는 쌤들이고, 그 다음은 동무

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기숙사 올라가면서 만나던 밤하늘 별들, 바지를 세 겹은 껴입어야 견딜 수 있는 선고리 겨울바람까지 제천 간디의 모든 것이 우리 다모를 키웠고, 모두를 키웠다.

아이들은 잘 모를지도 모른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제천 간디’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슬렁슬렁 자기들 옆을 지나가고 있는 쌤들이 생애 최고의 멘토들이라는 걸. 그걸 알게 될 때 아이들은 말 그대로 ‘영원한 간디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간디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간디’ 사람도 아니다. 제천 간디와 언제나 하나인 나는 ‘그냥 간디’ 사람이다. ✎

최소은(4학년) 기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제천 간디의 초창기 학부모이기도 하고, 지금은 학교 주방의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후조 쌤입니다. 가끔은 ‘똥강아지야!!’ 라고 꾸중해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의 보듬어 주시는 후조 쌤, 지금 만나보러 가실까요? Let's go~~~~



Q. 제천 간디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혹시 계기가 있나요?

A. 양 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계절학교, 산청 간디를 우선 먼저 알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

Q. 언제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셨나요?

A. 2002년부터 산청 간디에 먼저 입학했는데, 산청 간디가 중·고 분리가 되면서 중학교 입학 허가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02학년부터 장성에서 한 학기를 보내다가, 여기 제천에 9월 달에 새로 학교가 터전이 잡

혔어. 그래서 장성에 있던 02학번들이 오게 되고 산청에 있던 중2, 3학년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1, 2, 3 학년들이 함께 시작하게 된 거지.

Q. 학교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녀를 보내면서 불안한 점은 없으셨나요?

A.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지 않았고 너무 담담했던 것 같아. 지금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식을 믿는 만큼 성장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학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

Q. 그럼 학교 초창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 보다는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은데...

A. 굉장히 열악했지. 1층에 교실로 쓰고 있는 곳은 그 대로 교실로 쓰고 2층은 기숙사로 썼던 거야.

지금 비누공장이 있는 곳은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했었고 그 반대쪽은 남자 기숙사로 썼었어. 또 제일 끝에 있는 지금 제빵실은 남자 화장실이었어.

지금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 바닥 전부 대패질하고 창틀 청소하고 물로 청소하고 엄청 힘들었지. 학교에 주말마다 와서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 청소하느라고.

그리고 그때 지금의 강당을 짓게 되면서 우리 02학번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일일 음식주점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800만 원 정도를 강당 짓는데 기증하게 되었어. 또 02, 01학번들은 학교 초창기 때 함께 고생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부모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형제처럼 동지처럼 그런 애절함 같은 것이 많았던 것 같아. 그게 또 어려움을 함께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Q. 간디학교에 초창기 학부모로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학교를 보내면서 힘들었다는 생각은 모르겠어.

우리 제삼회 중심으로 해서 그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너무나 잘 놀고 있거든. 그 아이들이 끈이 되어서 함께 시작한 간디학교였기 때문에 힘이 들었던 얘기는 아무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나도 힘들었던 얘기보단 굉장히 보람찼고 학교 올 때마다 몹시 설레었고 행사가 하나 잡혀지면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 오고가는 길이 설레었고 기다려지고 그랬어. 그때 일일 사감도 두 가정이 돌아가면서 했는데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

Q. 제삼회가 뭐가요?

A. 제삼회는 제천에 제자와 삼은 02학번을 1~3학년 까지 담임을 하신 김병삼 담임 쌤의 삼자를 따서 제삼회가 되었어.

Q. 지금도 많이 모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A. 지금도 열 가정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빠들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같이 얘기도 해. 또 다른 학번 부모님 중에 제삼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계시. 그래서 이번에 01학번 진우 아버님도 같이 합류하게 됐어. 그리고 제삼회가 그전에는 손진근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을 하실 때 학교복지기금으로 성금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작지만 많은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Q. 간디학교의 학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A. 글썄, 이제 두 아이가 다 졸업을 하고, 경수 쌤은 6년차, 나는 4년차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는 학부모로서라기보다는 교사로서의 삶이 더 많이 와 닿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는 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의 학부모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교사를 하면서도 그런 열정들이 가득 차 있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프고 친구들이 좋아서 행복해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런 게 있어.

Q. 옛날에 자녀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어떠셨나요?

A. 그저 행복했던 것 같아. 아이들이 행복해 하면 그

행복이 배 이상의 행복함이 밀려와. 특히 제삼회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간디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지. 지금도 군대 다녀온 아이도 있고 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생활전선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간디학교의 저력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니까 내가 어떻게 힘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졸업생들을 보면 내공이 굉장히 큰 걸 알게 될 거야.

Q. 10년간 학교가 얼마나 변했나요?

A. 제일 큰 변화는 저렇게 산 밑에 웅장하게 현대식 건물인 기숙사가 서 있다는 것이고, 학교의 모습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

Q.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나요?
 A. 뭐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훌륭하고 좋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간디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틀을 잘 잡아 갔으면 좋겠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지역공동체, 학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Q. 지역이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간디학교가 마을에서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A. 학생들 100여 명과 귀농·귀촌하시는 학부모님이 열 가정 이상이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늘어났지. 그래서 여러 분야로 누리꿈터, 누리 어울림 센터를 통해서 리코더 수업이나 몸살림 등 문화생활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해.

Q. 12학년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A. 12학년 학부모님들이 들어오니까 벌써 10년 전, 딱 10년 차이가 나는 나도 저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참 용감했구나 싶어. 저 젊은

나이에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떼어 보낼 수 있었다는 게. 간디학교에 대한 믿음, 이런 우리가 참 용기가 대단했구나 싶지.

우리가 느리게 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조금해 하지 마시고 느리게 느리게 살아가시면서 그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

인터뷰 부탁을 흔쾌히 들어 주신 후조 쌤 감사합니다.

오래 전부터 학교를 봐 오셔서 그런지 학교의 예전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10년

덕산에 가면~!

최소은(4학년) · 손채은(2학년) 기자

‘시장에 가면’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번에는 ‘덕산에 가면’이라는 버전으로 한 번 불러 볼까요? “덕산에 가면 빠꾸네도 있고, 만리성도 있고, 매표소도 있고!!” 주말마다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치킨과 짜장면 집을 인터뷰해 보고 집에 가는 학생들의 필수 곳인 매표소도 찾아보았습니다. 간디인들의 10년 생활 속 언제나 함께 있었던 그들을 만나러 가 보실까요?



그림 · 신지성(5학년)





대동마트 덕산 시외버스정류장

Q. 저희 학교가 10년이 되었는데, 그 세월 동안 보아 오신 간디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A. 아줌마는 보기가 좋았어.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와서 표 달라고 그러니깐 좋았지. 10년간 지켜보면서 아줌마도 너희들한테 잘해 주고 잘 지내고... 자식같고...그 세월 동안 본 간디학교는 참 좋았어.

Q. 그렇군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나요?

A. 어떻게 성장해 왔나... 애들이 착해서 아줌마는 좋았어. 다들 착했지. 자꾸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면 아줌마는 더 좋고.

Q. 10주년을 맞아 저희 간디학교에 보내는 메시지

부탁 드려요.

A.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 잘하면서 잘 놀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일꾼이 되어서 잘 지내렴.

Q. 간디학교 학생들을 보실 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나요?

A. 잘 되면 좋지...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 새 학기 돼서 처음 보는 얼굴들. 모두들 열심히 공부 잘해서 동네에서도 착하게 잘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으며 지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웃음).

Q. 저희 간디학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애들이 집에 갈 때마다 물건을 꼭 놓고 가. 그래서 내가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지. 그런 거야 에피소드는 많아. 비가 오면 가방은 다 버려 두고 차에 올라타느라



고 바쁘지(웃음). 내가 찾아 주고, 전화 오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찾아가시고, 별일이 다 있지. 그래도 내가 다 찾아줘.

Q. 앞으로도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한마디.

A. 자기 물건을 잘 찾아가고, 자기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서 잘 챙겨 가라고. 그거 말고는 다들 잘 지내니깐, 아줌마는 별로 없네(웃음).

만리성

Q. 간디학교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A. 이곳을 연 지가 3년이 다 되어가. 아마 여기 문을 열 때부터 알게 되었지.

Q. 학교 사람들이 언제 많이 오나요?

A. 음... 회식할 때 많이 오지. 혹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날에 많이 오지.

Q. 학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켜 먹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A.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 짜장, 짬뽕, 탕수육을 많이 먹지. 잘 먹잖아?

Q. 학교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얼마나 자리 잡으며 이미지는 어떤가요?

A. 인사도 잘하고 다녀서 이쁘지. 마을 사람들이 이뻐하지. 이미지도 좋아.

Q. 간디학교 10주년 메시지 한번 부탁 드려요.

A. 앞으로도 잘 지내고, 정당하게 씩씩하게 예쁘게 이어나가라고.



삐꾸네

Q. 간디학교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A. 이 일을 한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애들이 밤에 기숙사로 닭 배달을 시키면서 알게 됐지.

Q. 간디학교랑 관련된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나요?

A. 간디학교에서 한 번 가수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가게에 들러서 먹고 사인해 주고 갔거든? 그게 기억이 나네.

Q. 간디 학생들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은 무엇인가요?

A.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애들이 돈을 낼 때 모자란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은 괜찮지.

Q. 간디학교 10주년 기념 메시지.

A. 10주년을 맞이해서 참다운 인성교육에 위주로 하는 거는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즉흥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응해 주신 삐꾸네 아주머니, 만리성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길고 긴 인터뷰를 열심히 응해 주신 매표소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욱 간디인들과 함께 하는 정겨운 분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

특집 3: 앞으로 10년

꽃 피는 봄, 뜨거운 여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추운 겨울. 간디학교가 제천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산청에서 제천으로 이사하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문득 10년 후에 봄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언제나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인 것만은 분명하겠죠? 이번 꼭지에서는 학교에 처음 방문한 외부인의 시선과 간디인이 바라는 10년 후 간디학교라는 주제로 우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모두 눈에 색연필을 하나씩 쥐고,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그려봅시다!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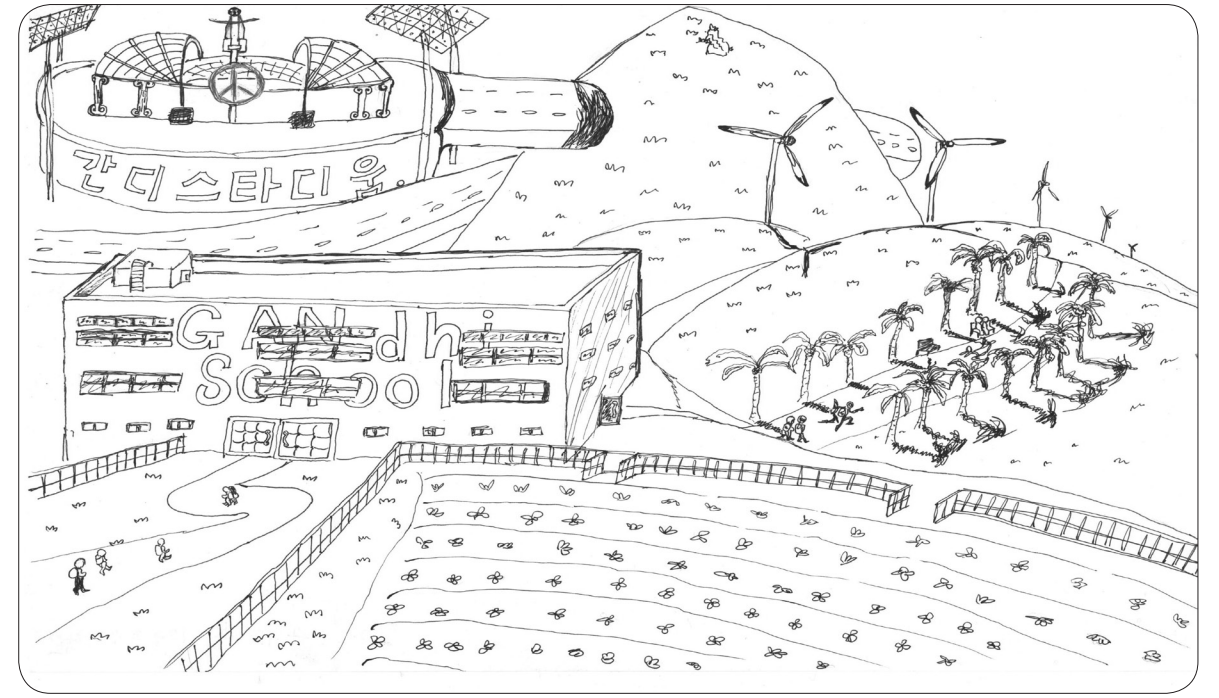
하한(3학년) · 김에림(2학년) 기자



그림 · 김은수(1학년), 임소현(5학년)

눈이 녹고, 꽃이 피듯이

하한(3학년) 기자



<10년 후 상상화-학교 전경> · 양지훈(3학년)

덕산에 10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고리의 눈은 서서히 녹고 있고, 학교 뒤편에 자리 잡은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10년이란 세월이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간디학교에 입학한 지 올해로 3년째인데, 10년을 헤아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학교에 남아 있는 옛날 사진들과 10년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사람들은 바뀌어 있지만 학교의 기운과 웃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2012년 간디IN 10주년 특별호에서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며 제천 간디학교의 10년을 그려 봤다면, 이 글에선 앞으로 변할 간디학교의 모습을 상상하며 10년 후를 그려 볼 생각입니다. 지금의 간디학교에 살고 있는 간디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나 열려 있는 간디학교

얼마 전 현관에 '우리가 꿈꾸는 간디학교'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크게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학교', '난방이 잘되는 학교', '냄새가 나지 않는 생태화장실', '알찬 채식자 식단', '벌레가 없는 학교' 같은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교에 살면서 생기는 불평, 불만들을 털어 놓는 설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뿐만 아니라 가족회의 때 올라오는 건의도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크고 작은 목소리 들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왠지 마음에 와 닿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졸업해도 놀러 올 수 있는 학교'. 간디학교는 6년제 중·고 통합과정이지만 6학년부터는 인턴십이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1학년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1, 2년만 지

나면 학교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학기 중에 졸업생 형, 누나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쌤들이랑 고학년들이랑만 인사하고 금세 가 버리곤 했어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기말 축제나 대동제 같은 큰 행사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졸업을 해서도 간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졸업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는 간디학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람

제천 이전 10주년을 맞아 우리가 정한 키워드는 '마을'과 '학교'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마을과 교류가 부족한 편이에요. 매달 학부모님들이 마을회관에서 침, 뜸, 미용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학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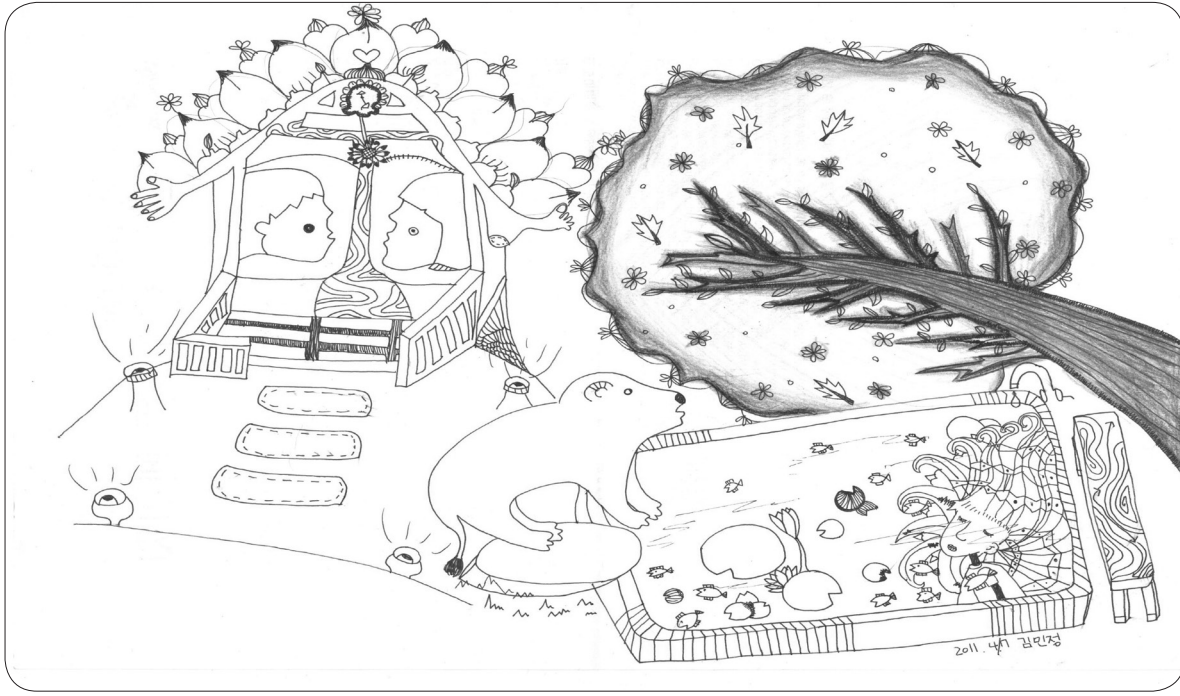
하는 큰 잔치에는 다들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간디학교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 데요. 학생들이 단체로 몰려다니며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고든가, 쓰레기를 길거리에 막 버려 놓거나, 마을 밭을 가로질러가는 행동들이 잦아지면서 생기는 감정들이 학교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우면서 사이가 안 좋은 덕산중학교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덕산중학교와는 최근까지도 학생들 간에 큰 마찰이 있었어요. 다행히 서로 사과하고 끝내긴 했지만, 여전히 주말에 덕산에서 마주치면 서로 안 좋은 시선을 보낸답니다.

간디학교가 제천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 나가고 있는 모토가 '더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혼자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 가족,

편견으로 본 간디학교의 양면성

허주영 도서출판 미니멈 대표



<10년 후 상상화-생태화장실> · 김민정(2학년)

이웃 같은 타인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대안학교’라는 타이틀을 목에 걸고, 10년이란 세월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와 마을이 분리되어 있으면 ‘대안학교’라는 소외감은 커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이 이해하고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다면 간디학교는 10년, 20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상상해 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귀여운 신입생들은 매년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쌤들도 오실 거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며 울고 웃다가 겨울에는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이 생기겠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만 끝나느냐,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느냐는 앞으로의 행동에서 나타나겠지요. 간디학교에서 매일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랑의 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아파도 1년, 2년 지나다 보면 마을과 더불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간디학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 고민하고, 변화하고 있지요. 다시 10년이 흐른다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앞으로 몇 년이 흐르든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가면 놀러 오세요. 제천 간디학교는 언제나 덕산면 선고리에 있을 것입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듯이. 🌸

사실 나는 간디학교에 편견이 있는 사람이다. 간디학교에 보낼 아이는 없지만, 가까운 친구가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간디학교를 염두에 두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대안학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간디학교는 어땠다’ 이전에 ‘간디학교는 어떠한가 한다’는 ‘부당한’ 당위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간디학교가 어떤지 깊이 들여다본 적도 또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다. 때문에 이런 내가 <간디학교 방문기>를 쓴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친구가 아이를 간디학교에 보내려고 할 때 들었던 간디학교의 입학과정 방식과 내용을 되짚어 보고는 마음이 바뀌었다. 간디학교의 입학생 선발과정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참으로 ‘편견 가득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 산, 마을, 학교

충청북도라기보다는 ‘강원남도’라고 해야만 할 것 같은, 기세 좋은 산을 구비구비 돌아 도착한 제천. 사실 간디학교 가는 길은 제천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아, 제천이 이리 산세 좋은 지역이었던가!

간디를 처음 방문한 건 작년 4월 입학식 때였다. 입학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3월 초여야 하는데, 당시 창궐했던 구제역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논의한 끝에 아이들 수업은 3월에 시작하지만, 외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입학식은 4월로 미뤘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역시 간디야,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논의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대상이 지역 주민이었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간디스럽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내 산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마을이 나타난



다. 덕산면. 간디학교가 아니었다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 마을을 이제는 꽤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전혀 요란할 것 없는, 투박하고 소박한 충청도의 맛을 내는 식당들은 서울에서 일상을 살며 문득 그 정겨운 맛이 생각나는 곳이 되었고, 덕산면에서 간디학교를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마을 학교 아이들이 간디학교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지 그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덕산면과 간디학교와 아이들의 고리를 보여주는 마을 안쪽의 카페. 당연히 '다방'만 있을 법한 '산골마을'에서 질 좋은 에스프레소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 카페의 '운영자'가 다름 아닌 간디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마을이 학교를 품고 그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간디학교 방문은 언제나 덕산면의 식당들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

덕산면 '번화가'를 벗어나 아주 멀지도, 또 그리 가깝지도 않은 별판에 간디학교가 있다.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것처럼 불현듯 그렇게 나타난다.

2. 간디에서의 한때

간디학교를 마주보면 당당한 산들이 마치 학교를 뒤에서 안고 있는 듯해서 학교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아늑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서면 뭐랄까,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해 보이는 산만함에 어찌해야 할까, 순간 당황해 쭈뼛거리게 되는데, 그럴 때면 언제나, 거의 언제나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 온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면 나도 몰래 답인사를 하고는 "저기, ×××가 어디니?"라거나 "○○○ 선생님 어디 계세요?"라고 말을 이어가게 되고, 그러면 명량한 답이 돌아온다.

당연해 보이는 이 과정이 얼마나 신선한지 간디의 아이들이 알까? 낯선 어른을 대함에도 전혀 스스럼이 없

고, 그러면서도 전혀 무례하지 않다! 도시의, 서울의 아이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낯선 이는, 세상은 무섭고 위험하므로 경계하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담을 쌓는다. 그런 아이들을 대하다 저렇게 웃는 얼굴로 경계심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경험이다.

그날도 그렇게 안내받아 약속한 학생을 만났다. 처음 만났으나 마치 동지인 양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까지 만나 안내를 받으며, 학년별·과목별 교실과 동아리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는 사이사이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도 하며 학교 내부를 둘러보고 '작업장'

수업도 기웃거리며, 잠깐이지만 좀 더 내밀하게 간디를 뒤져 볼 수 있었다.

수업 풍경 1.

운동장 강당 앞에 모인 일군의 남성들. '농사꾼'들이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돼지 돌보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료는 언제 누가 주느냐, 우리 청소년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등등 구체적이고 선명한 의견들이 오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아니, 저거 논의하는 게 다야?'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네들이 갑자기 낮을 들고 학교 뒷산에 오른다. 돼지 우리를 지을 나무를 하러 간단다. 아, 그 포스 가득한 농부들의 뒤탈대는 지금 생각해도 근사하다.





수업 풍경 2.

썩썩썩썩, 찌잉~ 그러더니 푹푹, 책꽂이가 만들어졌다. 강당 옆 목공소에서 선생님과 학생 몇이 학교 도서관에서 썩 책꽂이를 만들어 납품한다. 간디학교 내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이는 ‘납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른다. 책꽂이를 비롯한 목공품만이 아니라 비누공장의 비누들을 비롯해 간디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학교에 납품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의 노동의 결과물을 공유한다.

더 나아가 간디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생산한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줍’으로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줍’에서 얻기도 한다는데, 아직은 그 고리가 그리 단단하고 다양하지는 않단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남’인 나도 잠깐 생각에 잠겼다. 저 ‘줍’에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모쪼록 그 선량한 ‘줍’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업 풍경 3.

멋진 여선생님과 예쁜 여학생들이 향기도 좋은 비누공장 테이블에 모여앉아 회의 중. 주요 안건은 비누뿐 아니라 다양한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판매 및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예상할 수 없는 주문량과 재료비의 접점을 찾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는 건 손해이고 낭비이니까. 만약 간디학교에서 비누 등 이어 천연화장품도 판매한다면 구매하고 싶은 나는 결론이 너무 궁금했으나, 깊어지는 논의를 위해 자리를 떴다.

내 의지로 선택하고 주변과 의견을 모아 최선의 상태를 만들고 내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변과 공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원하는 일을 찾고, 같은 일을 하려는 동료들과 전문가이기도 한 선생님과 함께 일의 순서와 원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내 몸을 움직여 결과물을 완성해 내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는 것. 언젠가 이 사회의 미래가 저랬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행복한 한때를 잠깐 엿보았다.

3. 간디의 힘, 양면성

수업시간임에도 최신 유행가가 흐르는 학교 카페에 아이들이 모여 간식과 수다를 나누고 있었다. 역시나 스스로없이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내게 다가온 아이들은 묻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와 의견을 꺼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MP3를 핸드폰으로 오해한 내게 갑자기 날아든 옆 테이블 여학생의 강력한 의견. “핸드폰 사용하게 해야 하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 등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들. 간디는 여전히 논의중이다!

내가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를 빼고 가장 전면적인 관계를 간디학교에서 보았다. 장장 6년을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학교에 들어와 기숙사 생활까지 하며 맺어지는 선생님과 친구와 선후배들의 관계 말이다. 일상을 온통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어지간한 가족보다도 훨씬 전면적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전면적이면서도 개입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보통은 전면적인 정도에 따라 의

견과 개입 나아가 참견과 강요가 많아지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전면적이면서도 그렇게 개별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것이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수업만 해도 그렇다. 필수과목 외에는 스스로 알아서 과목을 골라 듣기 때문에, 누구 말처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반면 그냥 놀며 시간만 보낼 수도 있다.

잠깐 만난 아이들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면을 느꼈다. 간디학교의 그 많은 열림을 다양한 경험과 그에 따른 또 다른 가능성으로 신나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불확정성이 주는 예측불가능함을 불안으로 느끼는 친구도 있다.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전혀 다른 의견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긴장감이 나는 반가웠다. 그 긴장감이 개교 10년 행사를 10번 더하는 시간이 지나도 젊은 간디를 만들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의 면과 의견을 가진 간디는 매력 없다!

간디학교에 오면 거의 항상 마지막에 기숙사에 올랐다가 마을 카페로 간다. 정작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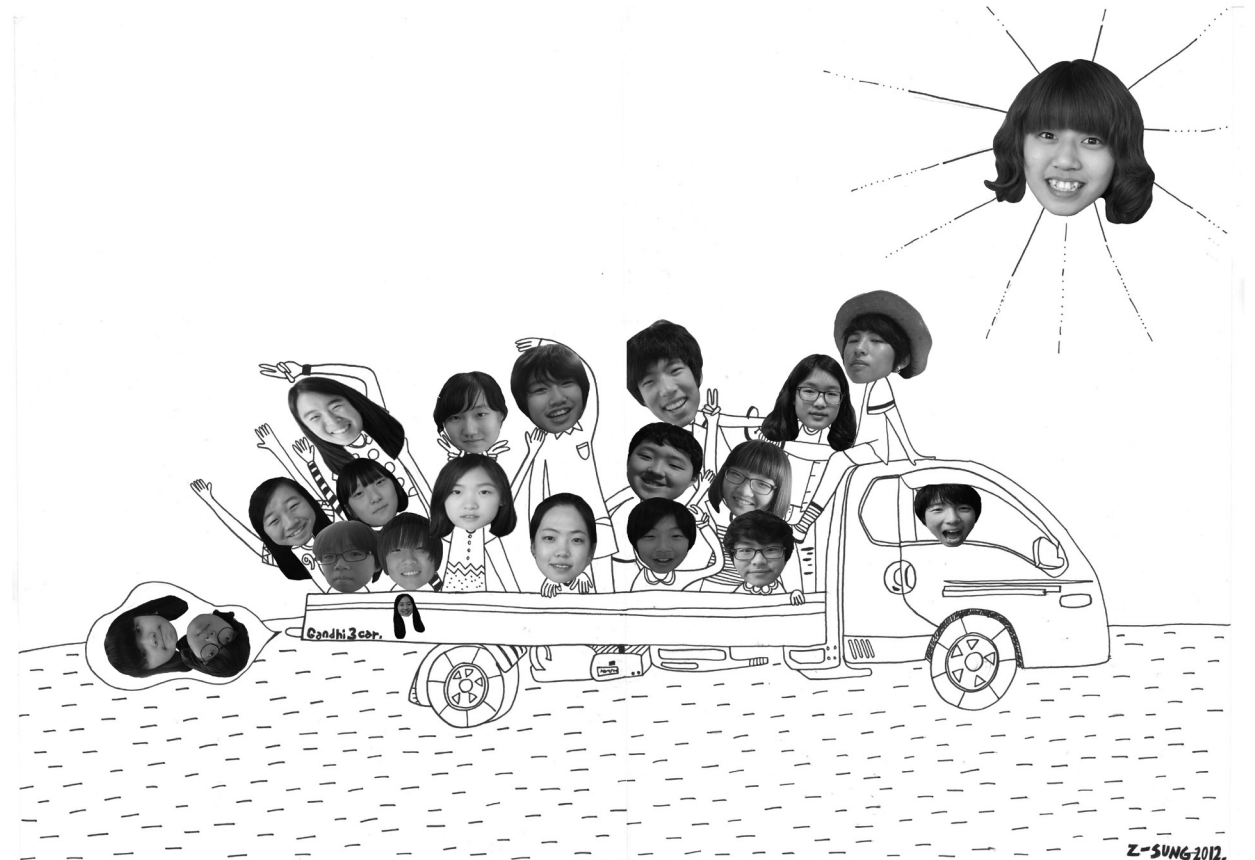


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많이 좁고
 덥다고 투정이 많은 것 같은데, 매일 오르내릴 일 없는
 방문자인 나는 기숙사를 오르는 길이 좋다. 기숙사가
 좋다. 건축물이 어땠고 자제가 어땠고 그런 게 아니라,
 기숙사에서 내다보는 시선이 좋다. 뭐랄까, 기센 산
 들과 '눈싸움'이라도 할 것 같은 기숙사에서의 당당한
 시선이 좋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는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주눅 들지 않고 제대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기
 운이 자랄 것 같은 마음에 기숙사가 좋다.
 아마 간디학교의 아이들은 다른 누구보다 '편견'에 많
 이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
 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편견도 무수히 많아서 내가
 간디학교에 품고 있는 대책 없는 기대 가득한 편견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
 끼는 이들의 근거 없는 비난이나 오해로 가득한 편견
 도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그 어떤 편견도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니 그런 편견들로 다치고 움츠

려들지 말고, 지금처럼 제 마음대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림에도 나는 나도 모르게 간디학교에 대해, 간디인
 들에 대해 다른 기대를 품게 된다. 궁극적으로 보면 교
 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이 원
 하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간디의 아이
 들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로도 충분히 족할 일이지만, 다
 른 아이들보다 행복해지는 법을 좀 더 아는 간디인들
 이 언젠가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폭력적이지 않은 더 많은 편견과 다양성으로
 더 알록달록해지기를 기대한다.

산의 보호를 받는 듯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산
 과 맞짱 뜨는 기숙사에서 자란다.☘

특집 4: 10년째 히치하이킹



Z-SUN&2012.
그림 · 신지성(5학년)

역대 입학식 사진

2003년 입학식



2005년 입학식



2004년 입학식



2006년 입학식



2007년 입학식



2009년 입학식



2008년 입학식



2010년 입학식



2011년 입학식



2012년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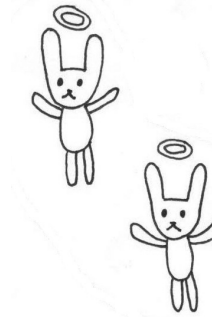


동물이 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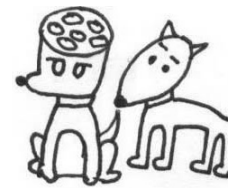
임소현 기자(5학년)



이름 : 진수
 성별 : 남
 종 : 진돗개
 서식년도 : 2002~2002년
 특징 : 간디학교가 제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함께한 동물이다. 하지만 너무 사나워 학생들에게 위험한 관계로 어디론가 귀양을 보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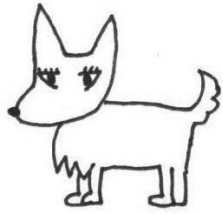
이름 : 토끼들
 성별 : 알 수 없음
 종 : 하얀 토끼
 서식년도 : 2003~?
 특징 : 새하얗고 조막만한 토끼로 학생들이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됨. 그로 인해 토끼들은 스트레인지수 급 상승. 한 마리는 물을 먹고 죽었다고 함(토끼는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용). 나머지 한 마리는 분노와 화로 가득한 학생의 화풀이 상대가 되어 밝혀 죽었다고 함...우째 이런 일이?! 故토끼의 명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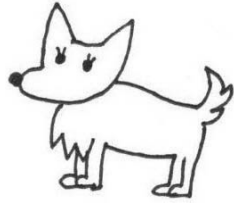
이름 : 연탄 & 석탄
 성별 : 남 & 남
 종 : 까만 발발이
 서식년도 : 2004년
 특징 : 연탄과 석탄같이 까맣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연탄, 석탄. 운동장 한 켠에서 살면서 학생들의 이쁨을 받았다. 하지만 실종...ㅠㅠ2
 마을 주민 분들이 정말 연탄인 줄 알고 때진 않았을지 걱정.



이름 : 똥식
 성별 : 남
 종 : 진돗개
 서식년도 : 2004~2007년
 특징 : 누런색 떡대 좋은 진돗개이다. 묶어 두고 키우질 않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큰 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보기 사납다는 마을 주민 분들의 항의에 경쟁 떡으로 귀양을 보냈다. 하지만 자유롭게 크던 아이를 묶어 두고 키우니... 시름시름 앓다가 자유를 찾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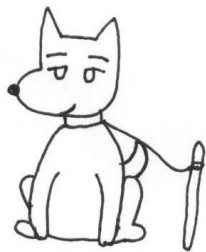
이름 : 춘자
 성별 : 여
 종 : 정석 발발이
 서식년도 : 2007~?
 특징 : 간디의 카사노건. 묶여서 지냈지만 어떻게 수컷 개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지 미스 테리하다. 그 덕에 새끼를 줄줄이 배어 간디의 진정한 팜프파탈로 등극하였다. 베스트 프렌드 (이하 베프)로는 수많은 수컷 개들이 있다.



이름 : 땡자
 성별 : 여
 종 : 정통 발발이
 서식년도 : 2007~?
 특징 : 춘자의 수많은 새끼들 중 한 마리로, 분양되지 않고 학교에서 함께 자랐다. 겁이 굉장히 많다. 지금 오타쿠 만화방에 위치한 컨테이너 밑에서 숨어 지냈다. 심지어 밥먹을 때도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몰래 먹었다고 한다. 엄마의 팜프파탈 끼는 물려받지 않은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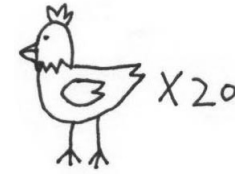
이름 : 솔이
 성별 : 남
 종 : 발발이 중 상 발발이
 서식년도 : 2008~2010년
 특징 : 은혜 썸이 키우던 강아지이며, 은혜 썸과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한 번 크게 아픈 적이 있어 은혜 썸의 큰 걱정과 큰돈을 들이게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런 솔이도 방랑자의 길을 택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도 2~3일에 한 번 꼴로 돌아오며 홈그라운드를 지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반전!!!!
 생사를 알 수 없다. 은혜 썸도 학교를 나가시게 되고 솔이도 돌아오지 않았다... 베프는 은혜 썸과 6학년 박종화 양.



이름 : 풀이
 성별 : 남
 종 : 진돗개
 서식년도 : 2009~현재
 특징 : 후조 썸 & 경수 썸네 개이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다. 덩치는 산만한데 순둥이가 따로 없다. 가끔 수리가 약 올리면 미친개처럼 날뛰기도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순하기 그지없다. 운동장 골대 옆을 서식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축구하다 공 맞기 딱 좋은 곳이다. 또 진흙이 많아서 자신의 집 지붕위에 올라가 있기를 일삼는다. 베프는 5학년 라유희 양(휴학해서 풀이가 무척 외로워함), 수리 그리고 동네 방랑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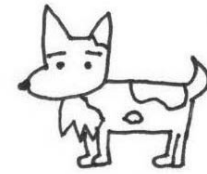


이름 : 수리 (Feat.누리)
 성별 : 남
 종 : 길고양이
 서식년도 : 2010~현재
 특징 : 박종화 양과 조의찬 군이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여 돌보다 여건이 안 돼 정환 썸이 키우게 되었다. 처음엔 정환 썸 집 방충망에 매달리거나 무릎에 올라가는 등의 애교를 부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움직이지 않기 시작함. 게으름뱅이의 삶이 시작된 것.



'식물이 되고 싶은 건가.'라는 의문을 자아낼 정도...
 2011년 7월경 정환 썸이 '누리'를 데려온 후 성질 나서 본격 학교에서 기거하기 시작함. 그러면서 학생들의 손을 많이 타기 시작해 학교 안까지 점령. 하지만 만날 쫓겨난다. 점심시간 널브러져 자고 있다가 축구공에 맞아 혼쫓나기도 하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해 구조시켜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멍청이.

이름 : 닭1~닭20
 성별 : 다양함
 종 : 토종닭
 서식년도 : 2011~2011년
 특징 : 2011년도 고등 작업장 '닭장'으로 키우기 시작함. 소강당 가는 길 닭장도 학생들이 손수 지었다. 뿌듯. 고등작업장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쑥쑥 큼. 하지만 2011년도 가을쯤 김범수, 이현무 학생을 비롯하며 여러 학생들과 썸들이 닭 잡음. 그날 저녁 식단으로 닭죽이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닭을 못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남 찹찹 잘 먹었다. 닭요리는 항상 옳다.



이름 : 복길
 성별 : 남
 종 : 발발이
 서식년도 : 2011~2011년
 특징 : 희석 썸이 집에서 키우던 개인데, 학교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움찔움찔 쫓았다.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견주인 희석 썸이 목욕도 시켜 주고 똥도 치워 주며 잘 돌봐 주었지만, 결국 가출. 그런데 요새 학교에 복길이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방랑견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복길이인지 다른 개인지 알 수 없음.



이름 : 돼지들
 성별 : 씨돼지와 그의 추종자들
 종 : 흑돼지
 서식년도 : 2012년
 특징 : 2012년도 농사작업장에서 분양받은 7마리의 돼지들. 처음에는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 돼지들이었으나 돼지밥 당번들의 성실함 덕분에 돼지들이 날로 자란다. 돼지우리 근처에만 가도 밥 주는 줄 알고 물러둠. 돼지는 돼진가 보다. 하하. 돼지우리는 닭들이 떠난 닭장에서 임시 거주. 돼지들 힘이 너무 세서 닭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생태화장실 옆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사했다. 이곳 역시 농사 작업장원들의 땀과 노력이 맺혀 있다(작업장 만세). 햇빛이 나지 않는 오전엔 안에 있다가 오후에 나와 일광욕과 계주를 즐기며 돼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언젠간 잡아먹힐 운명. 쑥쑥 자라렴. +_+
 아참, 돼지요리도 항상 옳다(그러나 난 채식자인걸...). 🍴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날 대신 할 순 없어, 피카피카~!

임소현 (5학년) 편집장

간디학교에 입학해서 1년에 4번 머리를 쥐어짜고 글을 쓰고 소식지를 내는 '일상다반사'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간디IN 소식지 한 편에 써 있는 '○○○ 기자' 라는 문구가 '간지'나 보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동시를 하루에도 수십 편씩 쓰고, 얼마나 아빠에게도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하곤 했기에 늘 즐거웠던 글쓰기를 생각하고 들어왔으나, 일상다반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늘 다른 일과 겹치고 테드 라인 기한 내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점점 흥미를 잃어 갔다. 그래도 맡은 바 할 일은 해야 되니 적당히 무난한 인터뷰 글 맡아 뻘한 질문하고, 점심시간에 후닥닥 해치워(?) 버리기를 2년. 4학년이 되면서 할 일이 많아지자 일상다반사에 대한 짜증은 더욱 커져 갔다. 더구나 정환 쌤이 말으면서 좀 더 체계(간간)가 잡히면서 더 이상 피해 다닐 틈이 없었다. 겨울 방학 무렵쯤 정환 쌤한테 선전포고를 했다. 일상

다반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너무 힘들다면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고 도망치듯 겨울방학을 했다. 더 이상 테드라인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 기분이 날아가도 모자랄 판에 웬지 모르게 마음은 불편했다. 방학 동안 많은 생각을 해 봤다. 어떤 선택에 따른 책임은 나의 몫이니 기쁜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정환 쌤에게 쓰아붙인 말은 감정이 앞서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이었고, 일상다반사 활동을 짜증으로 느낀 것도 나였던 것이다. 결국 내가 문제였다. 그런데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그만둠으로써 회피하려 한 것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니 쌤에게 죄송해서 편지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니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개학을 하고 새 학기가 시작 된 지금 나는 일상다반사의 편집장이 되었다. 제천 간디학교 10주년 특별 호

라 할 일이 두 배 세 배는 많아지고 수업도 빠세졌지만 (?) 마음은 즐겁다. 고민 끝에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불타 오른다. 나는 솔직히 이런 결정을 내린 내가 대견스럽다. 예전에 난 쉽게 포기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너무 약한 아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법을 알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간디학교 5년에 학교생활이 모두 녹아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즐거운 곳을 선택하는 법, 스스로 책임지는 것, 어려움이 닦혔을 때 문제해결을 고민하는 힘을 길러 준 것 같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어렸을 적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을 꾸역꾸역 표현했을 때보다 확실하게 내 마음을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다.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시간 지은이 : 임소현

시간아! 시간아! 늦게 가라
학교가기 싫어 시간아! 시간아
빨리 가라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거든 너무 늦게
그럼 빨리 가자도 말
그 늦게 가지도 마



거기서 괜히 한번 짜증내는 것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 더 이상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도록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아직도 나는 여전히 짜증이 나고 힘이 들지만 자꾸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간디학교가 있다.☘

아이의 스케치북

김태진 지음

출판사 어바웃어북 | 2012.05.03

판형 A5 | 페이지 수 333 | 정가 16,000원



그림으로 만나는 나와 너

지난 5년 동안 제천 간디학교에서 미술수업을 해 오면서 바라봤던 아이들의 놀라운 작품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재능을 그냥 흘려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워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보물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살아오면서 생긴 여러 상처들로 그 보물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 버릴 수 있기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상처를 드러내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아이들 내면 깊이 들어 있는 아픔들을 끄집어내어 세상 밖으로 날려 버리고 자신의 보물을 찾아가는 용감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마음을 열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이 위에 연필과 색연필로 그리기도 하고 때론 물감으로 손바닥만한 나무판 위에다 그렸습니다. 넓은 천에다 마음껏 물감을 뿌리고 발바닥으로 찍으면서 쾅쾅쾅쾅 뛰어다니면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캔버스 삼아 그리기도 하고 모래놀이도 해 보았습니다. 더 넓은 바닷가에 나가 모래놀이를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잘 따라와 준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울고, 웃으며 몰입하여 만들어 낸 작품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이의 스케치북>은 그 아이들의 스케치북입니다.

2012년 4월 23일, 지은이 김태진(제천 간디학교 교사)

기자 후기



김정환(28학년) - 특별 호 내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열어 보니 헬 게이트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두 달 동안 특별 호에 '미쳐' 버린 기자들과 방향을 마치고 저 대신 기자들 쥐어 짜 준 편집장 소현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표지 사진 장식해 준 졸업생들과 좋은 글 주신 분들, 아이들 인터뷰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분들, 인턴십 나갔다가 덜컥 특별 호 편집을 맡게 된 남궁청 등등. 이번 호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특별 호를 받아 볼 수정 · 햇님 · 지인 기자들에게도 그리움을 전합니다.



김예림(28학년) - 바로 엊그제 저녁에 기획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마감을 했네요! 이번에는 팀으로 글을 썼었는데 같이 글 썼던 하한 오빠 고맙고 수고했어! 숙제 많은데 그림 그려 준 민정아도 고맙고, 삽화 그려 준 은수, 멋진 그림 그려 준 지훈 오빠도 고맙고! 완전 새로운 기획이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일상다반사, 편집장 소현 언니, 정환 쌤도 수고했어요!
일상다반사 짱! ㅋㅋ



손채은(28학년) -아, 굉장한 특집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 온 모두들 수고했구, 소은 언니!!! 진짜 대박 완전 짱 수고했어!!!! 우리 완전 크게 회식가자!! 그림 앞으로도 파이팅!



이기원(28학년) - 잘하겠다고 맘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네요. 사진기자가 사진만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네요유!!!!!! 유!!!!!! 그래도 파이어 해서 열심히 파이팅해서 활동할게요~ 글구 실수 많이 했는데, 수습해 준 인지 언니랑 우정이 감사감사~>_< ㅎㅎ 봄 호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정(28학년) - 이번 호를 특별 호로 하느라 모든 기자들도 완전 고생 많았고 저도 사진기자 하면서 이렇게 바빠 본 건 처음이에요!!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ㅎㅎ 가원아!! 우리 이번에 진짜 수고한 것 같아.ㅋㅋ 그리고 신입기자들이랑 사진기자 효원이 반가워~^^ 잘해 보자!! ㅎㅎ 아무튼 일상다반사 진짜 짱 머경 두 번 머경ㅋㅋ



김민석(18학년) -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일상다반사 기자 김민석입니다.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자라는 말이 부끄럽지만 앞으로 맡은 일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감이 없어서 기자 후기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이팅하겠습니다.



김은수(18학년) - 안녕하세요? 신입기자 김은수입니다! 정말 정말 한 것 없는데, 벌써 이번 호를 내네요. 앞으로는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한(3학년) - 여태 해 오던 형식을 갈아엎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소식지를 만들었는데요. 다들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같이 일하면서 호흡한 예림이 수고했고, 삽화 열심히 그려 준 은수도 수고했어. 다음 호부터는 글 써야 되니까 멘토 역할 열심히 해줄게.ㅋ 그리고 마감시간 못 지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특집 호 하나라 머리 많이 빠지셨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호를 계기로 다들 자기 글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상다반사 빠세.



한별(4학년) - 우왕 드디어 10주년 특집 호도 끝났네요!! 무사히 끝내서 완전 행복해용>< 가정학습 때 새벽 4시까지 글 쓴 현영 언니 수고했고, 정말 미흡했던 설명에도 청탁을 흔쾌히 받아 주신 나리 언니, 다은 언니 감사해요♥ 그림은 쟈병인데 연표를 손으로 그리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다 그리고 나니까 나름 괜찮네요:D 편집장 소현 언니랑 일상다반사 진짜 와방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영(4학년) - 이번 호는 통째로 10주년 특집으로 만들어서 더 공을 줌 들인 것 같아요. 일단 정환 쌤이랑 편집장 소현 언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일한 파트너 별이!! 내가 신경 많이 못 써서 미안해요ㅜㅜㅜ 일상다반사 앞으로도 10년 넘도록 파이팅하자고요! 빠세!!!!



최소은(4학년) - 10주년 특집이라 어느 때 보다 부담감도 컸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번 호만큼 열심히 할게요~!!



최형규(2학년)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딱딱딱한 신입기자 최형규입니다. 아직은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진 못했지만, 다음 호부터 저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안효원(1학년) - 처음이어서 떨렸는데, 언니 오빠들 그리고 쌤이 적응을 잘하게 해 주셔서 재미있었고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간디in짱!!!!



임소현(5학년 편집장) - 아... 특집 호 편집장을 맡다니...제가 제 무덤을 봤네요... 하하! 그래도 이번 계기로 일상다반사에 애정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모든 기자 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정말 고마워요. 정환 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느라 진짜 힘들었... 아니 지금도 힘든데 제가 히스테리 부린 많은 분들에게 죄송해요. 햇님아, 지인아, 그리고 모든 편집장님을 최고! 이번 봄 호 소장 가치 있습니다. 뿌듯해여!!!!